

# 모방과 정체성

## 철학 vs 예술

# 교육: 철학과 시가

- ▶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 통치자(귀족)의 교육: 체육과 시가
  - 체육: 전쟁수행능력의 확대
  - 시가: 영웅적 행위 모델의 모방
- ▶ 플라톤의 철학에 입각한 교육
  - 이데아 이론이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: 이데아가 현실의 존재를 개선시키는 척도·모델·규범을 제공
  - 이데아가 제공하는 척도·모델·규범에 따라 불완전한 현실의 존재를 점점 더 완전하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: 교육

# 시가의 규제 (1): 무엇을 말해야 하나

- ▶ 시가의 내용 규제
- ▶ 신들 간의 전쟁, 싸움질, 음모는 사실이 아니다 → 왜냐하면 신은 선하고 좋은 존재이기 때문.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오직 좋은 것의 원인.
- ▶ 신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 형상으로 바꾸어 속이지 않는다 → 왜냐하면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이므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. (완전하므로 변할 이유가 없음. 신은 자기동일적인 identical 존재, 자기 자신과 언제나 일치하는 존재).

# 싸우는 신들(1)





## 싸우는 신들(2): 우라노스와 크로노스



## 싸우는 신들(3):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크로노스





# 제우스: 모습이 변하는 신(1)



## 제우스: 모습이 변하는 신(2)





## 시가의 규제 (2): 어떻게 말해야 하나

- ▶ 시가의 전달방식(공연방식)의 규제
- ▶ 시인이 모든 것을 음송해주는 이야기 진행(서사시)만을 허용
- ▶ 목소리나 몸짓의 모방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(비극, 희극)은 허용하지 않음
  - 비극과 희극의 배우는 “그가 마치 다른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” 각각의 등장인물을 최대한 닮도록 함
  - 일종의 속임수

# 신과 이데아

- ▶ 플라톤이 생각한 신의 특징들은 이데아의 성격에 반영되어 있다.
- ▶ 신:
  - 선함/ 좋음: 오직 좋은 것의 원인
  - 완전함: 변하지 않음, 자기동일적임
- ▶ (1) 좋음(좋은 것의 원인임)과 (2) 완전한(자기동일적임)의 두 성격은 이데아에 반영

# 배우의 모방의 문제



- ▶ 나쁜 것(가령, 악당)의 모방: “진정한” 모방이 아님
- ▶ “동일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것을 모방할 때”(배우)의 문제
  - 이데아의 모방 = 존재의 사다리를 타고 진정한 자기자신이 되어감, 자신의 고유한(proper) 정체성과 점점 일치해 감 vs 배우의 모방: 그때마다 다른 다수의 등장인물을 모방 →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.
  - 남자 배우가 여자 배역을 연기: 성역할의 질서에 혼란을 초래
    - 정체성의 질서(자연nature의 질서)의 혼란 초래



# 예술가의 모방물

- ▶ 장인(목수, 제화공): (초감각적인)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(감각적)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
- ▶ 예술가(화가, 배우): 아이디어의 모방물(현실의 존재)을 다시 모방하여 상(image)을 만들어낸다 → 존재의 질서에서 가장 하위의 것('가장 덜 존재하는 것')을 만들어낸다
- ▶ 아이디어 → 현실 → 상(image)

# ‘시인의 추방’

- ▶ 배우:

(1) 존재의 질서에서 가장 하위의 것(이미지)을 만듦 → 진정한 ‘제작’이 아님: 배우가 만들어내는 것은 가치가 낮다. 하지만 이것은 이상국가의 정체성 질서와 모방의 질서를 위배하지는 않는다

(2) 플라톤이 배우(예술가)를 이상국가에서 추방하려고 한 이유: 배우가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인 양 연기하여 정체성의 질서를 교란함

- ▶ ‘시인의 추방’ → 이데아의 규준에 따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고자 노력하는 공간 (‘이상국가’)의 구축하기 위해 이 공간에 맞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

# 현대의 플라톤 비판

- ▶ 포퍼(K. Popper): 『열린 사회와 그 적들』. 플라톤의 이데아 존재론에 입각한 이상국가론은 모든 구성원이 미리 정해진 코스에 따라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는 닫힌 사회의 이론이다
- ▶ 니체: 허무주의 비판. 플라톤의 이데아-현실의 이원론은 현실의 가치를 떨어뜨려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에 떨어진다
- ▶ 들뢰즈: 허상(시뮬라크라) 개념의 복권. 예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‘모방’하는 독자적인 활동이다



# 色 | 戒 (이안, 2007)

- ▶ 소재: 일제 강점기 미인계를 이용한 친일파 처단
- ▶ 주제:
  - 연기(모방)란 무엇인가?
  - 배우는 어떤 존재방식을 갖는가?

# 色 | 戒

- ▶ “그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도록 하시오”
- ▶ “연기라면 그가 몇 수 위죠. ... 날 안을 때마다 그는 뱀처럼 내 안으로 파고들어요. 내 심장까지... 난 노예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충실히 내 역할을 다해 그의 마음을 얻어내죠. 그는 매번 내가 ... 고통의 비명을 질러야만 만족해요. 그 때 자신이 살아 있다고 느끼죠. 그는 내 반응이 가짜가 아니란 걸 알아요. ... 이러다 사로잡히는 건 내가 되고 말 거예요. ... 점점 두려워져요. 마침내 그가 내 심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내 구경만 하고 있던 당신들이 뛰어 들어와서 그의 머리를 쏘 버릴까봐.”

# 배우의 모방과 '환상'의 창조

- ▶ 배우의 과제: 등장인물을 모방하여 관객 앞에 등장인물의 '환상'의 창조하는 것
- ▶ 잘된 모방: 배우는 등장인물의 '환상'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여, 관객은 자신의 눈 앞에 배우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'환상'을 본다
- ▶ 잘못된 모방: 배우는 관객 앞에 등장인물의 '환상'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여, 관객은 서툰 배우의 '발연기'를 볼 뿐이다





# 연기가 실패하는 두 경우(잘못된 모방의 두 경우)

- 1) ‘환상’을 창조하지 못하거나 ‘환상’을 깰 때(김건모)
- 2) 등장인물과 완전한 일치하게 될 때(‘색, 계’)
  - ▶ 니콜라스 케이지: ‘메소드 배우와 정신분열증 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다’
    - 배우가 배역에 잡아먹힘

# 배우- '환상' - 관객

- ▶ 배우는 관객과 자신 사이에 등장인물의 '환상'을 만들어낸다
- ▶ 배우는 이렇게 창조된 등장인물 뒤에 남아 있다. 즉, 배우는 모방을 통해 진정으로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.





# ‘색, 계’의 주인공이 처한 딜레마

- 상황: 가장 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상대의 연인 역할을 해내야 함
    - 1) 보통의 연기를 통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“사로잡을” 수 없다, 즉 상대 앞에 ‘환상’을 만들어낼 수 없다 (거짓 사랑이 드러남)
    - 2) 상대를 유인하여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기하는 배역이 진짜로 ‘되어서는’ 안 된다(진짜 사랑이 적을 구함)
- 배우는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해야 성공할 수 있다

# 배우의 존재방식

- ▶ 모방·연기의 성공하려면, 배우와 배역 간의 불일치와 거리가 전제되어야 한다
- ▶ 배우의 존재조건: 외면과 내면, 모방자와 모방대상의 불일치는 배우의 근본적인 존재조건. 모방대상과의 일치하는 배우의 목적이 아니다 (↔ 이상국가의 구두장이: 모방자의 목적인 모방대상인 이데아와의 일치이다)
- ▶ 배우는 이중적 존재: 배우는 등장인물이자 동시에 배우여야 한다

# 이상국가에서 모방

- ▶ 이데아의 불완전한 분유(分有): 이데아와의 불일치
- ▶ 목적론: 일치를 향한 운동

# 배우의 모방

- 단순한 '흉내'가 아니다
  - 모방대상과의 불일치: 배우의 불완전함이 아니라, 배우의 조건
  - 모방대상과의 일치: 배우의 목적이 아니라, 배우의 실패
- 배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, '속임수'나 '기만'을 사용하거나, '정체성의 혼란'을 가져오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



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1): 신화와 비극

- ▶ 이미 모든 대답이 주어져 있어서 물음이 필요 없는 신화적 영웅의 공간은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닫혀 있는 공간
- ▶ 비극적 인물(영웅이자 개인)은 닫혀 있는 신화의 공간을, 물음과 이에 대한 이성적인 대답을 통하여 열려고 함. 하지만 비극의 공간은 전 시기의 신화적 공간과 다가올 시기의 이성적 공간이 겹쳐 있던 시기

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2): 소피스트

- 신화적 질서가 무너져 내린 공간에서 소피스트들은 온전히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가짐
- 하지만 소피스트들의 인간중심적인 태도는 오로지 현실만을 인정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회의주의적, 상대주의적, 허무주의적 태도를 가짐
- 소피스트에게는 주관적 현실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 없음 → 닫힌 공간

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3): 소크라테스

- 주관적 의견들을 넘어 성립하는 객관적 앎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음, 물음을 통해 이 앎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고무하고 격려함
- 닫혀 있는 소피스트적 현실을 다시 열린 공간으로: 철학의 시작

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4): 플라톤 - 1

- ▶ 이데아론과 이상국가론: 철학의 교육적 권위를 쟁취하기 위해, 한편으로 예술에 맞서고 다른 한편으로 소피스트들에 맞선 플라톤의 이론
- ▶ 이데아론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의 정체성(identity)과 본성(nature)에 대해 묻고 탐구하는 활동이 확고한 의미와 방향을 가질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줌

#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4): 플라톤 - 2

- ▶ 완전한 것으로 존재하는 이데아가 앞의 대상으로서, 그리고 현실의 존재자가 장차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가져야할 정체성의 토대로서 먼저 존재  
→ 다른 정체성의 가능성이 미연에 차단됨
- ▶ 이데아론과 이상국가론에 의해 성립된 공간은 이런 의미에서 닫혀 있는 공간



#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(5): 예술가(배우)

- ▶ 이데아론의 닫혀 있는 공간에서 이상국가의 구성원은 모방을 통해 오로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한 가지 정체성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.
- ▶ 모방을 통해 하나의 특정한 정체성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은 예술가(배우)의 목적이 아니다. 이러한 일치는 오히려 예술적 모방의 실패를 의미한다. 예술가는 자신의 독특한 존재방식으로 인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이해받지 못하는, 추방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.